퍼즐

게임 메커니즘에서의 퍼즐은

플레이어가 게임 플레이 중 멈춰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퍼즐을 풀고 있는 것이다

퍼즐은 진짜 게임일까?

- 1. 퍼즐은 '재미있는 문제' 이다
- 2. 퍼즐은 대부분 1인용이다
- 3. 플레이어의 입력에 똑같은 출력만 하는 것이 퍼즐이다
- 4. 엔딩이 있는 스토리 기반의 게임도 퍼즐이다
- 5. 퍼즐은 정답이 있다
- 6. 퍼즐은 반복 플레이 하지 않는다
- 7. 퍼즐은 우월 전략이 있는 게임이다
- 8. 퍼즐은 우월 전략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게임의 축소판 이다

게임속의 퍼즐 역할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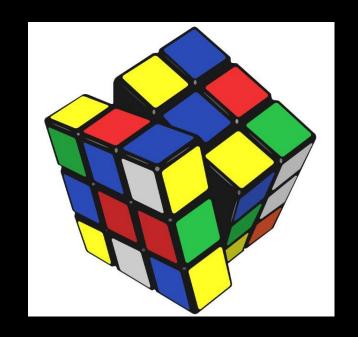
- 1. 퍼즐 기반의 게임에서 액션 기반의 게임으로의 변화
- 2. 퍼즐을 풀지 못하면 게임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
- 3. 퍼즐은 게임 환경속에 녹아 들었다
 - 대전 격투 게임에서 특정 상대에게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할지 멈춰 생각한다면
- 레이싱 게임에서 경주를 제한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 어떤 위치에서 부스터를 써야 할지고민 한다면
 - FPS 게임을 할 때 피해를 적게 입으려면 어떤 적부터 쓰러뜨려야 하는지 생각 한다면

- 1.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라
 - 사람들이 퍼즐에 관심이 생기도록 하려면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한다
 - 플레이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이내 흥미를 잃어 버릴 것이다
 -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는 것이 퍼즐의 일부일 수도 있다
- 문제가 매우 열린 구조로 되어 있고,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임은 일부 퍼즐 매니아들을 위한 게임 될 수도 있다

- 2. 시작하기 쉽게 만들어라
 - 퍼즐의 목적을 이해 했다면 그것을 풀기 시작할 것이다
 - 시작하는 방법이 분명해야 한다
 - 퍼즐을 풀 생각이 없는 사람도 한번 해보고 싶어 지도록 만든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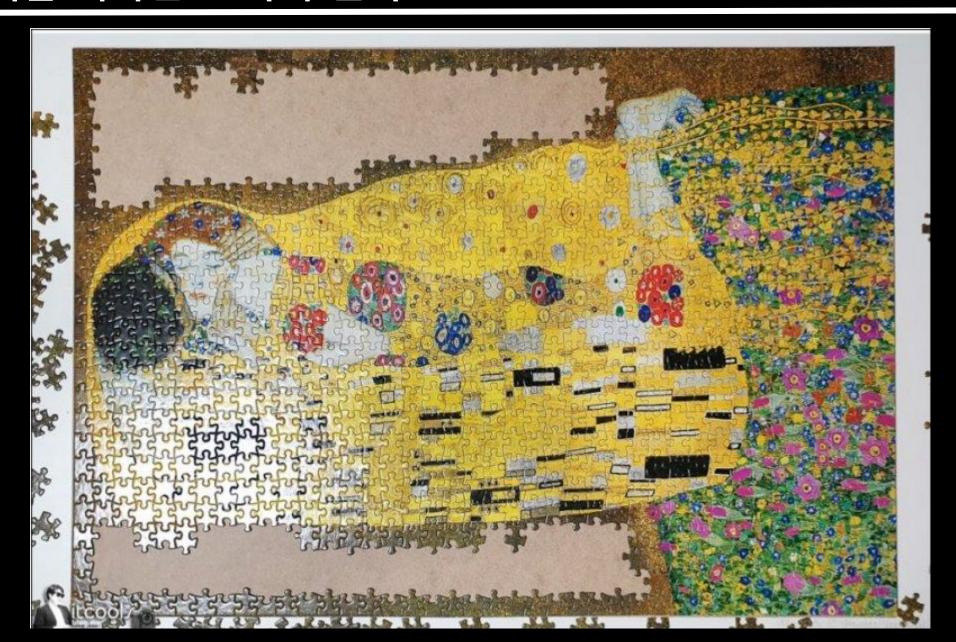


- 3. 진도가 나간다는 느낌을 준다
 - 퍼즐을 보통 해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무엇가가 있다
 - 플레이어는 진도가 나아간다는 느낌을 좋아한다
 - 진도는 플레이어에게 해답을 알아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준다
 - 수수께끼는 답만 기다리는 문제이다
 - 스무고개는 수수께끼를 퍼즐로 만들었다



- 4. 풀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라
 - 플레이어에게 풀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
 - 플레이어가 퍼즐을 풀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포기해버린다
 - 플레이어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되어 버리는 느낌을 주거나 실증을 느낀다
 - 답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

- 5.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올려라
 - 게임의 난이도는 점진적으로 상승해야 한다
- 퍼즐은 그 해답을 찾을 때까지 여러 목표를 단계적으로 하는 작은 행동들을 해 나가면서 풀게 된다
 - 이런 행동들의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한다



- 6. 병행은 플레이어를 쉴 수 있게 한다
 - 퍼즐은 플레이어가 멈춰서 생각하게 한다
 - 단점은 플레이어가 퍼즐을 통과하지 못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
 - 연관된 퍼즐을 여러 개 동시에 주어 다른 퍼즐을 먼저 시도하도록 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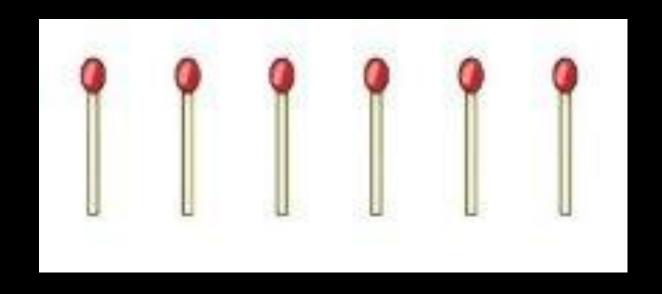
	종			어	지	심
성	속		치	조		리
		목	안		위	항
		덜		설	상	
어	디			레		
수				다	보	
선	총				도	

- 7. 피라미드 구조는 흥미를 배가 시킨다
 - 작은 퍼즐의 연속들이 보다 큰 퍼즐의 단서가 된다
 - 병행제는 그 자체가 피라미드 퍼즐 구조를 만든다
 - 퍼즐의 모든 부분이 마지막 하나의 도전으로 모이게 한다
 - 마지막 도전이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

- 8. 힌트는 흥미를 배가 시킨다
 - 적절한 시기의 힌트는 플레이어에게 새로운 희망과 호기심을 준다
 - 힌트는 퍼즐의 경험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면은 있다
 - 힌트를 받아서 퍼즐을 푸는 게 전혀 못 푸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

9. 답을 주라!

- 퍼즐의 즐거움은 퍼즐의 답을 알아냈을 때 '아하!' 하고 느끼는 경험 이다
- 퍼즐을 푸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답을 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경험이다
- 문제를 푸는 두뇌는 그저 답을 보거나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끼게 되어 있다



여섯 개의 성냥개비를 배열해서 똑같은 삼각형 4개를 만들 수 있을까?

- 10. 관점의 전환은 양날의 칼이다
 - 1) 이전에 이 퍼즐을 본 적 있어서, 우쭐하는 즐거움은 있지만 푸는 것은 아무 재미가 없다
 - 2) 관점 전환을 해내고 정답을 찾아냄으로써 매우 재미 있었다
 - 3) 누군가가 이야기해줘서 약간의 '아하' 효과와 함께 스스로 알아내지 못해 약간 아쉽다
 - 4) 짜증나서 포기해 버린다
 - 플레이어가 관점의 전환에 성공하면 커다란 즐거움을 느끼며 문제가 풀린다
 - 관점의 전환에 실패하면 플레이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

